



“콩 한 쪽도 나누어 먹읍시다”

주일 오후 1시
오늘은 “콩 한 쪽도 나누어 먹자”
(서울역 만나 나눔)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서울역에 나오지 않고
서울역에서 나오도록 하는 일을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코로나가 확산되자
서울역에 돕는 이들과 단체가 줄어들기에
지난 부활절 이후에도 나가게 되었습니다.
떡, 바나나, 두유, 마스크 3개를 한 세트로
조출하지만 충분히 점심을 대신할 수 있도록
160명분 준비합니다.

도착하여 나누기 전에 기도한 후
바로 마스크를 안 쓴 분들부터
마스크를 별도로 드리고
1미터 이상 거리를 두도록 합니다.
손 세정제도 필요시 사용케 합니다.

몇몇 노숙 형제들은 스스로 나서서
거리를 두자고 합니다.
장애인들은 옆으로
앞줄에 서도록 서로 양보합니다.

그러나 두 번씩 받으려 하거나
마스크를 더 달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는 앞에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더 달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이나 형편을 보아
개인적으로 몇몇 분들에게는 선물을 합니다.

오늘은 00대 형제가 뜻밖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마루노숙인대학 출신이고
작년까지만 해도 때때로 양복을 입고
교회에 나오던 노숙인 찬양대 베이스였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
완전히 알코올중독에, 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거룩한 날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의 버팀목인지
저도 격하게 실감합니다.

00대 형제는 교회에 오면 이따금씩 내 방에 들러
그 좋은 저음 베이스로
“목사님, 고민이 많습니다...”
그 뒷이야기를 기다리면 말을 잊지 못하고
손을 잡으며 “목사님, 제가 다시 올게요!”하며
떠나곤 하던 몇 살 아래 노숙인 형제입니다.

오늘은 제게 와서 인사를 하기에
“이게 무슨 꼴이냐”했더니
가슴에 안겨서 우는 것입니다.
기도해 달라고도 하고

서서 기도한 후 헤어지질 못해
펜스에 기대든 채 땅바닥에 앉아 이런 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술에 취하여 이야기가 제대로 통하지 않아도
자기 이름과 제 이름을 번갈아 부르기에
무엇을 나누고 싶은지 이해는 갔습니다.

하지만 피차 이 고해의 인생
어쩔 수 없는 한계를 느끼며
체념은 할 수 없어 기도하며 헤어졌습니다.

기도하니 울면서 죄인을 용서해 달라고 하더군요!
인간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거룩한 갈망을
잠재할 수 없는 영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주 안에서 거룩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때엔 어려운 이들부터
더 어려워지고 더 망가집니다.
가슴 아픈 날입니다.

/ 서울역을 다녀와서, 이주연 드림

ZOOM으로 참여하는 주일영상예배

9월 12일과 13일, 참가자 200명 선착순 모집

‘ZOOM으로 참여하는 주일영상예배’를 9월 12일 토요일예배 1부(오전 9시), 2부(오후 4시), 13일 일요일예배 1부(오전 6시 50분), 2부(9시), 3부(11시 30분), 4부(오후 1시 50분)에 드린다.

ZOOM으로 참여하는 주일영상예배는 참가신청을 따로 받지 않는다. 웹캠이 있는 PC나 노트북, 태블릿으로 주일예배 시작 전에 ZOOM에 접속해 있다가 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를 통해 공지되는 접속 URL을 따라 로그인하고 영상 예배 에티켓에 따라 주일예배에 참석하면 된다. 접속은 예배 시작 20분 전부터 할 수 있고, 각 예배당 선착순 200명

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ZOOM으로 참여하는 영상예배 참여가 마감되었을 경우에는 온누리교회 유튜브나 CGNTV로 예배를 드리면 된다. ZOOM으로 참여하는 주일영상예배 화면이 예배당 좌우 대형 스크린에 게시된다. 일방적인 영상을 시청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예배에 참여하는 양방향 소통이다.

김재석 목사(예배본부장)는 “주일영상예배를 통해 예배당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고, 성도 간 소통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02-3215-3263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온누리교회 영상 예배 에티켓〉

1.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2. 예배 시작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합니다.
3. 예배 중에는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모든 순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4. 성경책을 반드시 지킵니다.
5.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통해 봉헌합니다.

2020 추수감사절 ‘사르밧 프로젝트’

9월 27일까지 헌금 및 대상자 선정

온누리교회가 2020년 추수감사절을 맞아 ‘사르밧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사르밧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순은 9월 27일(주일)까지 쌀 20kg를 구입할 수 있는 액수의 헌금을 순이름과 송금인 이름으로 해당 계좌에 입금하면 된다. 개인적으로도 사르밧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

사르밧 프로젝트 대상자는 온누리

교회 공동체 및 대학청년부에서 우선 선발한다. 9월 27일까지 대상자의 주소 및 연락처를 담당지역팀에 전달하면 된다. 쌀 구입 및 배송은 온누리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농어촌교회와 연합해서 공급처를 선정하고 주문한다. 10월 11일(주일) 이후 산지에서 배송한다.

문의: 02-3215-3434

계좌: 각 캠퍼스별 해당계좌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2020 엔젤트리 사연접수 시작

온누리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2020 엔젤트리 사연접수를 시작한다. 온누리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된다. 사연대상자의 이름, 나이, 성별, 주소, 연락처, 원하는 선물을 명확하게 기입해야 한다. 엔젤트리 사연접수는 온누리교회 등록 성도만 할 수 있다. 타 교회 성도나 외부 기관에서 사연접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사회선

교본부에 문의해야 한다.

엔젤트리 선물은 3~5만원 이내의 물건이다. 의류나 신발을 원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색상과 사이즈를 반드시 기입해야 한다. 특제메이커, 현금, 상품권, 생물, 꽃, 케이크 등은 접수할 수 없다.

문의: 02-3215-3436, 3434

류현모 교수의 '세계관 묵상'

공산주의 세계관의 메타네러티브



류현모 교수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공산주의 세계관은 1800년대 후반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 자본론 등의 저술에 기초한다. 이후 러시아의 레닌주의, 중국의 마오주의, 북한의 주체사상 등 각 지역마다 마르크스의 이론을 실행

행에 옮기면서 다양한 분파들이 생겼다. 공산주의는 마르크스가 주창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20세기 초중반 50~60년 동안 다양한 실험을 시행하였다. 소련의 시베리아 강제노동 수용소와 중국의 문화혁명, 천안문 사태 같은 인간개조를 위한 실험 때문에 1억 명 이상 죽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공산국가가 가장 중요시하는 경제의 대실패로 몰락하여 마치 지구상에서 사라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근본이 되는 마르크스의 이념은 서방국가 대학 내에 여전히 주류세력으로 남아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형편이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공산당의 정치적, 재정적 지원을 등에 업고 학문적으로 그들의 세계관을 지지할 학술자료를 양산했다. 서방 인본주의자들이 그들과 공명하면서 모든 무신론자들에게 공유되어 진화론을 패

러다임화 하는 근거를 제공하였다.

첫째,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공산주의의 답에 대해 살펴보겠다. 공산주의는 인본주의처럼 초자연성을 부인하는 자연주의와 과학주의를 기반으로 하며, 변증법적 유물론에 근거한 사회변화를 신봉한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한다. 소련 공산당은 모든 사람이 열심히 일한다면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큼 받는다' 이상적인 공산사회가 운영될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능력만큼 일하지 않고 필요 이상으로 받으려는 인민들을 마주하게 된다. 당시 소련 과학자 파블로프는 조건반사 실험을 통해 행동주의 심리학을 주창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에게 학습을 통해 주입한 조건으로 특정행동을 유도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은 인간을 진화 중인 짐승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동물이나 기계처럼 어떤 조건을 가하면 인간들이 동일하게 반응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공산당은 자기의 이념에 따르지 않는 인민들을 시베리아 강제노동수용소에 보내 행동주의에 따른 인간개조를 시도한다. 그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부인하기 때문에 공산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인민을 수용소에 보내거나 영원히 제거하는 일을 쉽게 할 수 있다.

둘째, '나의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이다. 공산주의자는 모든 사회문제의 근원에 경제체제 문제가 있다고 본다. 공산주의자

들은 토지, 공장, 자본 같은 생산수단을 가진 부르주아들이 사회의 모든 조직을 통해 생산수단이 없는 프롤레타리아들을 착취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착취 구조에 국가가 있고 가정이 있다. 교회 역시 부르주아들과 힘을 합쳐서 프롤레타리아들을 착취구조에 순응시키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공산주의자들은 원시사회-왕정사회-봉건사회-자본주의-사회주의-공산주의 순서로 사회의 경제체제가 진화하고 있다고 규정한다. 각 경제체제 하에서 재화를 생산하고 분배하는 방식이 사람들 사이에 관계하는 방식을 규정한다. 즉, 사회에 정착된 잘못된 경제체제가 근본문제이다. 그 문제에서 파생하여 정치, 종교, 법, 문화 같은 사회 문제로 연결되고 그 영향이 개인의 문제로 연결된다고 생각한다.

셋째, '그 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모든 악의 근원이 잘못된 경제체제에 있기 때문에 생산수단을 프롤레타리아들이 장악하는 것이 첫 번째 해야 할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어떤 폭력을 사용하더라도 잘못이 아니라고 규정한다. 그 다음은 잘못된 경제체제에 의해 파생되어 그것을 지탱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가, 교회, 가정과 같은 사회구조를 파괴하는 것이다. 이 같은 구식 사회구조들을 빨리 무너뜨려야 새로운 경제체제를 안정화시킬 새 사회구조들이 정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레닌은 공산혁명을

통해 그 이념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그 변화가 급격하게 폭력을 통해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넷째, '결국 나는 어디로 가는가?' 공산주의자들은 유물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을 물질 혹은 다른 짐승 이상의 의미를 두지 않는다. 하나님이 없고 성경이 제시하는 윤리와 법의 기준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현세적이며 말초적인 즐거움만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또한 강제노동수용소를 통한 사상교육은 인간의 창의적 경제활동 의지를 말살하고, 오직 당의 명령에 순종하며 눈치만 보는 인간을 양산할 뿐이다.

마르크스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인민에게 환상의 행복인 종교를 폐지하는 것은 인민의 진정한 행복을 위한 필요조건이다"라고 했다. 그 가르침에 따른 구소련과 중국 그리고 북한 공산당에 의한 종교 특히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잘 알려져 있다. 솔제니친의 <수용소 군도>, 쿠르투아의 <공산주의 흑서>는 공산당의 적으로 지목된 자들의 인권상실과 죽음을 다루고 있다. 공산당은 기독교를 일차적인 적으로 지목하고 있다. 때문에 그들의 본질, 주장하는 바, 그리고 정권을 잡았을 때 기독교를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묵상: 공산주의가 기독교와 함께 할 수 없는 이유를 생각해 보자.

전도, 이렇게 합시다!

고정관념은 '고장 난 관념'이다

사람들은 그냥 보는 것 같지만 모두 틀을 갖고 본다. 아인슈타인은 "기적은 없다고 믿는 삶과 모든 삶은 기적이라고 믿는 삶이 있다"고 했다. 나는 후자의 삶을 선택했다. 기적은 없는 것인가? 아니면 믿지 않아 못 본 것인가?

전도도 마찬가지다. 어렵다고 생각하면 시작하기도 힘들다. 못할 수밖에 없는 구실만 찾게 된다. 전도하려면 고정관념부터 깨야 한다. 새가 알을 깨고 나오듯 전도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야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

고정관념은 '고장 난 관념'을 의미한다. '당연하다'는 생각의 틀이 굳어지면 고장 난 관념이 된다. 고정관념을 깨려면 생각을 바꿔야 한다. 전도는 가장 먼저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이 세상의 해답은 오직 예수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반드시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눈을 들어 발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요 4:35).

이 말씀처럼 무르익은 곡식들이 낫을 기다

리고 있고, 그것을 생각하면 행복하다. 전도하면 기쁨이 있고, 쓸데없는 고민을 할 시간이 없기에 행복해진다. 전도에 대한 고정관념을 탈피하면 길이 열리고,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공동체 가족의 문상을 갔다가 그곳에서 김혜정 집사님을 만났다. 나를 보더니 전도를 부탁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하면서 전도요청을 해왔다. 언니의 시어머니께서 허리 수술 이후 일어나지 못하고 계속 병원에 입원해 계셔서 많이 쇠약해진 상태라고 했다. 어르신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친구들과 어울려 놀러 다니기를 즐기고, 불교신자로 부적을 좋아해서 집안 곳곳에 붙이고 넣어 둔다고 했다.

김 집사님의 언니는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 시어머니 고집은 누구도 못 꺾는다"면서 전도를 포기했다. 그러나 동생인 김 집사님이 병문안을 갈 때마다 하나님이 그 영혼에 대한 긍휼한 마음과 부담감을 주셔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전하려고 몇 마디 꺼내면 어르신의 얼굴이 굳어지고 거부하는 표정

이 역력해서 감히 말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

나는 자기주장이 강하고 고집이 센 어르신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고민하며 기도했다. 그리고 며칠 뒤 김 집사님과 함께 어르신을 찾아갔다. 요양병원에 입원하신 어르신은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 목욕을 끝내고 기분이 상쾌한 듯했다. 병실 침대에 앉아계신 어르신의 코가 동그스름하고 복스럽게 보였다. 나는 상대방의 언어로 다가 "어르신 코가 복코예요. 정말 잘 생겼어요"라는 말을 건넸다. 어르신은 코를 만지며 좋아하셨다.

"요즘 무슨 생각을 많이 하세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인생은 생로병사라 죽는 것도 어렵지요? 그런데 좋은데 가고 싶으시죠?"

"마음은 그렇지만 잘못된 것이 많아서 갈 수가 없어."

나는 솔직하고 정직한 분이라고 칭찬해 드린 다음 복음을 전했다. 어르신은 기다렸다는 듯이 복음을 스펀지처럼 받아들이셨다. 영접 기도를 따라 하시고, 준비해 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읽으셨다. 복음을 재확인해 보니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에 계신다면서 가슴을 어루만지셨다. 아직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도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고 말하겠다고 하셨다. 그제야 옆에서 있는 집사님을 보시며 "고맙소"라며 눈물을 흘리셨다. 두 사람은 부둥켜안고 한참을 울었다. 우리는 그 어르신 손을 잡고 축복송을 불러 드렸다. 생명의 빛이 들어가니 혼미해진 영이 사라지고 영혼이 뜨겁게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안 된다', '어렵다'는 우리의 고정관념과 선입견이 전도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요청자의 끊임없는 영혼에 대한 사랑과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져서 주님이 행하실 것이다. 복음이면 충분하다.



박인숙 목사
(신용산공동체,
<전도여왕의 전도
레시피> 저자)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선한 일을 시작하려면

느헤미야 2:11~20

“우리 모두가 이 시대 느헤미야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 바라보며 성벽을 재건해야 합니다.
선한 일에 쓰임 받는 선한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느헤미야에서 북소리처럼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일(work)’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며 지키는 일을 하도록 계획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에덴동산에 인간을 두시고 다스리며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넓은 의미로 말하면 인간은 일을 통해서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통해서 인간의 탐욕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일을 통해 기쁨을 누리고, 감사하고, 만족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일과 관련해서 세 부류 사람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둘째,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알지만 보고만 있는 사람들입니다. 셋째, 일이 일어나게 하며 그 일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느헤미야는 세 번째 부류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일을 꿈꾸고 일어나게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일을 ‘선한 일’이라고 불렀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어느 시대에나 있을 수 있는 평범한 공사처럼 보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 일을 선한 일이라고 불렀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함을 받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8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선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라고도 번역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은 악과 싸우는 손길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단순한 토목공사가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 악과 싸우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인도함을 받은 일이었습니다.

둘째,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겉 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동기를 보십니다. 동기가 순수하지 않은 일은 언제나 문제에 부딪히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동기가 순수하지 않은 사람이 하는 일은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도 그만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순수한 동기로 일을 하는 사람은 문제에 부딪힐수록, 고난이 생길수록 더 힘이 나고,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며, 문제가 클수록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셋째, 자발적인 희생으로 참여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자발적인 희생으로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누가 그에게 그 일을 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백성들이 탄원한 적도 없습니다. 왕이 명령한 적도 없습니다.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고 자발적으로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일은 매우 힘겨운 일이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안전하고 안락한 환경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느헤미야에게는 할 필요가 없는,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일, 누가 요구하지도 않은 일, 당시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을 일이었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순수한 동기로 자발적으로 희생하며 참여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경험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 일을 선한 일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확신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선한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로부터 오는 확신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일을 꼭 이뤄 주실 것이다. 성벽 재건은 주의 종인 우리의 할 일이다”(느 2:20).

만약 우리 일 가운데 이러한 확신이 없다면 선한 일이 아니거나 선한 일일지라도 꼭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일 중독자는 과도한 성취 욕구에 빠져 있습니다. 일로 자신의 양심을 만족시키고, 평안을 얻으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일을 주신 것은 일로 인하여 우리의 양심과 평안을 얻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일과 우리의 관계조차 깨어진 것입니다. 일 중독자에게 없는 것이 확신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로부터 오는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일하고, 때로는 불필요한 일과 하나님께서 맡기지 않은 일까지 하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과도한 성취욕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불필요해 보이고, 엄청난 희생이 요구되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원하시고, 시대가 요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쁘게 헌신했습니다. 확신을 가졌기에 그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선한 일을 위해 지음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쉽고 편안한 일을 택하려 하지만, 우리는 선한 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선한 일은 때로 우리에게 희생과 헌신이 요구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확신, 평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선한 일일수록 돕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

습니다. 돕는 사람들이 부족해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확신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느헤미야가 직면한 어려움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들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엡 2:10).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선한 일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4개월 동안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였고, 지원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에게는 두 번째 어려운 관문이 놓여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일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매우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또한 힘겨운 일이었습니다. 세 가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첫째, 백성들에게 패배의 역사의식이 있었습니다. 성벽 재건은 느헤미야가 처음 시도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1차 포로귀환과 2차 포로귀환으로 귀환한 수많은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미 90년 전에 포로가 귀환되었고 성벽재건이 시도되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실패했습니다. 실패 원인이 외부의 방해가 있었지만 그보다 중요한 이유는 백성들의 마음 상태였습니다. 백성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지만, 막상 현실에 부딪히니 각자의 삶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인간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는 백성들 입장에서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식어진 마음을 일으켜야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느헤미야 스스로에게도 변화가 일어나야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 관원이었습니다. 페르시아의 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해야 하는 일은 성벽을 재건하는 건축가, 행정가, 지도자 역할입니다.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무너진 성벽을 쌓은 일 자체도 어려웠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었습니다. 횡행하고 공격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대적 세력의 중심이 되는 세 사람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세 사

람은 호론 사람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아,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입니다. 첫째 인물은 산발랏입니다. 바벨론 이름입니다. 바벨론 이름을 사용한 것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일 겁니다. 그는 바벨론 시대부터 사마리아의 총독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페르시아로 지배국이 바뀌어도 여전히 페르시아에 충성을 다하는 간신형 지도자였습니다. 만일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면 사마리아의 세력이 약화될 것을 염려했기에 그는 예루살렘 재건을 방해하는 세력으로 등장했습니다. 둘째, 인물은 도비아입니다. 그는 암몬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은 유대인 이름입니다. 도비아는 ‘여호와와 선하시다’라는 아주 좋은 이름입니다.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도비아는 유대 사회 깊이가 들어가 정치적인 이권을 차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인물입니다. 셋째, 인물은 게셈입니다. 아라비아 사람입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하에서 아라비아 지역뿐만 아니라 당시 에돔, 모압 지역까지 영향을 미쳤던 인물이었습니다. 이 세 인물의 공통점은 자신의 이권과 이기심입니다. 정치적인 이익, 세상의 중심에 있는 이기심을 따라 자신의 이익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선한 일을 방해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직면한 어려움은 전방위 360도, 동서남북에서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스스로도 엄청난 변화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백성들의 식어진 마음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대적들로부터 이 일을 보호해야 합니다. 매우 힘겨운 성벽 공사를 이루어야 합니다.

선한 일이라고 확신하며 그 선한 일에 참여하기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에서 3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러던 중 밤에 몇 사람을 데리고 순찰을 나갔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예루살렘을 위해 할 일을 정해두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내가 타고 있던 말 외에는 탈 것도 없었습니다”(11~12절).

이 말씀에서 두 가지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 ‘밤에’입니다. 느헤미야는 밤에 정찰을 나갔습니다. 밤은 정찰에 적합한 때가 아닙니다. 달빛만 의지해서 정찰을 한다는 것은 어리석어 보이는 일입니다. <14면에 계속>

인천 WEB공동체의 아주 특별한 사역

선교사들을 위한 ‘Together On 캠페인’

코로나19가 아니었으면 올여름 대학청년들의 여름은 어땠을까? 전 세계 곳곳에서 태양보다 뜨거운 아웃리치를 했을 것이다. 그만큼 아쉬움이 남는다. 그런데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들은 상황을 탓하지 않는다. 상황이 그렇다고 가만있을 리가 없다. 하나님의 일을 또 하나 선포였다. 인천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WEB공동체가 실시한 ‘투게더 온(Together On) 캠페인(이하 Together On 캠페인)’이 바로 그것이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WEB공동체 청년들이 Together On 캠페인 굿즈를 포장하고 있다. .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외 성도들은 물론이고 선교사들이 전후무후 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선교사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마음 같아서는 선교지에 그대로 남아있고 싶었지만 그마저도 뜻대로 되지 않았다. 온누리교회 파송 선교사들이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상당수 귀국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더 큰 문제는 언제 선교지로 돌아갈 수 있을지 기약을 못한다는 것이다. 선교사들이 이 안타깝고 힘겨운 상황을 견딜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들의 중보기도다. 인천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WEB공동체는

선교사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견디고 있다. WEB공동체 지체 중에도 선교사 자녀가 10여 명이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더 깊이 공감할 수 있다.

WEB공동체가 선교사들에게 관심을 갖고 위로한 것은 올해 부활절 무렵 실시한 공감소 비운동부터다. 그때도 선교사 가정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 뜨겁게 중보기도 했다. 문장원 목사(WEB공동체 담당)는 선교사를 위한 기도를 결코 멈추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WEB공동체에 선교사 자녀들이 많습니다. 자연스럽게 선교사와 선교사 자녀들에게 관

심을 가지게 되었고,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올해는 아웃리치가 없는 대신 공동체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고, 이웃들을 섬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Together On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공동체의 힘을 느끼고, 하나님 주신 비전도 발견

Together On 캠페인에서는 선교사와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중보기도와 더불어서 온오프라인으로 드린 수요부흥예배를 중심으로 티셔츠 판매 운동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SNS에 인증하는 ‘투게더 온 챌린지’,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에게 편지를 전하는 ‘굿뉴스(Good News) 메신저’ 등을 실시했다. 티셔츠 판매 금액과 굿뉴스 메신저는 국내외 선교지 11곳에 전달할 예정이다.

박요셉 형제는 지난해 아웃리치에서 만난 선교사들과 지역 교회 목회자들을 생각하면서 Together On 캠페인에 동참했다.

“지난해 필리핀과 전남 구례 아웃리치를 다녀왔는데 그분들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 생각하면서 동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김지수 자매는 Together On 캠페인에 동참하면서 공동체의 힘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선교사님들과 선교사 자녀들을 섬기기 위

해 모이려고 힘쓰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의 기도제목을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공동체의 힘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권재현 형제는 Together On 캠페인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생겼다. 비즈니스 선교에 눈을 떴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선교사가 되겠다고 서원을 했었는데 그동안 선교를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진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Together On 캠페인에 동참하면서 박정대 선교사님께 ‘어떻게 하다가 선교사님이 되셨나요’라고 질문했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 비전이 떠올랐습니다. 기업을 세워서 인재를 양성하고, 그 인재들이 선교할 수 있도록 각국에 보내는 비즈니스 선교가 하나님이 제게 주신 비전입니다.”

인천 온누리교회 WEB공동체와 결연된 박정대 선교사(레바논)에게도 Together On 캠페인이 무척이나 뜻 깊었다. 수년 동안 중동지역에서 사역하면서 공동체 성도들과의 교제를 그토록 갈망했기 때문이다.

“청년들과 온라인으로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굉장히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청년들의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청년들과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Together On 캠페인’에 참가하며

의무감이 아니라 성령님의 마음으로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에 단기선교를 다녀왔다. 그 단기선교에서 식어버린 선교와 영혼에 대한 마음이 다시 뜨거워졌다. 그런데 단기선교를 다녀온 이후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하면서 선교와 영혼에 대한 뜨거웠던 마음이 또 조금씩 식어갔다. 코로나19 사태와 첫 직장생활이 겹쳐서 힘들고 지쳐있던 나는 ‘내 믿음 하나 지키기 어려운데 어떻게 선교와 영혼에 대한 마음을 뜨겁게 품고 눈물로 기도하며 결단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새로운 환경과 일상생활에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던 나는 Together On 캠페인을 통해 회복을 소망하는 기도를 시작했다.

Together On 캠페인에 처음 동참할 때는 의무감으로 관심을 가지고 기도했었다. 어

느 날 온라인 공동체 수요저녁부흥예배에서 우리 공동체와 새롭게 결연을 맺은 선교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다.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 하나님 앞에 선교에 대한 마음을 고백하고 결단하고 기도했던 모습이 떠올라 더욱 부끄러웠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나와 지금의 내 모습이 너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 선교사님께서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말할 수 없는 감동과 이유 모를 눈물이 흘렀다. 지금 생각해보니 성령님이 주신 마음이었다. 선교와 영혼에 대한 마음이 미지근해졌던 나는 정말 오랜만에 의무감이 아니라 성령님의 마음으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다.

/ 박은혜 자매

함께 복음 전파하는 그날을

나는 선교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다. 왜 굳이 대한민국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해외 사람들을 도와야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지난해부터 WEB공동체에 출석하면서 아웃리치를 알게 되었다. 올해 초 말씀 묵상을 하다가 해외 아웃리치 한 번은 꼭 다녀와야겠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다. 그러면서 선교가 무엇인지 생각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하여 아웃리치를 갈 수 없었고, 그 대신 ‘Together On 캠페인’에 동참했다. 선교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참여했다. 전부터 선교에 대한 생각이 없던 터라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해야 하나 고민하기도 했다.

그러나 선교사님의 간증을 듣고, 로마서 15장을 묵상하면서 나와 내 주위만을 바라

볼 것이 아니라 복음을 한 영혼에게라도 더 전파하는데 힘써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국은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싶지 않은 사람, 교회라는 곳을 알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열방에는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탄압받는 사람들이 많다. 한 달 동안 Together On 캠페인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알 수 없는 곳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돕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Together On 캠페인은 끝났지만 열방을 품고 있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할 것이다. 함께 복음을 전파하는 그날을 기대해본다.

/ 이상욱 형제

전문가 기고

비대면 시대 예배에 대하여

지금은 삶으로 전도하고, 전심으로 예배할 때



김수민 권사
(동대문중앙공동체,
기업CEO,
칼럼니스트)

기원전 64년 7월 18일, 로마 제국 수도에서 도시 전역으로 불길이 번진 화재가 발생했다. 오늘날처럼 소방서가 없던 시절인데다, 얼마나 큰 화재였는지 6일 동안 밤낮으로 번진 그야말로 대화재였다. 도시 절반이 잿더미로 변했고, 수만 명의 시민들이 집과 일터를 잃었다. 이 모든 게 미치광이 황제 네로의 짓이라는 소문이 퍼지자 성난 민심은 견잡을 수 없게 되었다. 신변의 위협을 느낀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방화범으로 몰아 무차별 학살했다.

한국 인구 50%가 모여 있는 수도권에서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이 벌어졌다. 학생들은 등교를 못 하고, 자영업자들은 가게를 못 열고, 유학이나 자격증을 위한 시험들이 연기되고 있고, 프로야구와 프로축구 구단의 선수들과 팬들이 패닉에 빠졌다. 그리고 이들은 교회에 원망을 돌리고 있다.

우리의 자녀들은 교회 다닌다는 사실만으로도 죄인처럼 위축되어 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코로나19 방역의 책임을 뒤집어쓴 채, 이기적이고 광신적인 집단으로 인식되는 수치를 당하고 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했는데도 교회가 코로나19의 원인지라는 주홍글씨가 찍혀버렸다.

많은 교회들이 이웃에게 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영상 예배(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로 전환했다. 평생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에 익숙한 기성세대들은 영상 예배가 낯설고 아쉬울 수밖에 없다.

물론 영상 예배의 장점이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고, 주말마다 심각한 주차난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고, 가정예배를 더 드리게 되고, 시간과 동선을 절약하게 된다. 그러나 어른들은 물론 차세대들이 영상 예배에 익숙해질까 우려된다. 정작 나 역시 TV나 스마트폰을 통해 영상 예배를 드릴 때면 예배당에 갈 때와 같은 자세가 나오지 않는다. 편한 차림에, 편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게 된다. 예배당에서와 같이 설교 전에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게 되지 않는다. 어떤 가정은 자녀들이 주일날 늦잠 자고 일어나 잠옷 차림으로 거실에 나와 졸린 표정으로 앉아 있다고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당 예배를 평생 당연한 일상처럼 여겨왔다. 그러나 이제는 기약 없는 일이 되어가고 있다.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가난한 살림이지만 밥을 지을 때마다 성미 한 줌

씩을 구별해 모았다가 주일날 교회에 예물로 바쳤다. 주일에 드릴 헌금을 미리 다리미로 다려 봉투에 담게 했고, 새로 사주신 옷은 주일날 먼저 입혔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다.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형식이 내용을 보호할 때가 있다.

극심한 핍박에도 복음은 뻗어나갔다

세계 교회사에는 신앙의 지조를 지키느라 참혹한 고문과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있었

수난은 약 300년 동안 지속되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지역상인 조합에서 쫓겨나 일터를 잃는 등 수많은 불이익을 당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숫자는 성령의 역사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결국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밀라노칙령을 통해 기독교를 공인하기에 이르렀다.

1968년부터 1976년까지 마오쩌둥을 중심으로 중국에서 진행된 문화혁명 당시 교회와 성경을 불태우고, 5천5백 명의 선교사를 축출했으며, 50만 명의 교인들이 극심한 신앙적 핍박



최근 한국 교회가 내는 회개와 자숙의 목소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

모진 고문과 순교에도 예배를 지켜낸 신앙 선진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계절을 비대면 시대에 만들어보자.

다. 스테반 집사와 열두 제자, 사도 바울처럼 성령의 강한 역사 속에서도 끝없는 핍박과 죽음을 맞이한 사도들, 이국땅에서 처형을 두려워하지 않고 조국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세 번 예배한 다니엘, 공산주의 치하에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려 스스로 목숨을 바친 수많은 선진들이 있었다.

로마의 지하묘지 카타콤베에 가보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자 밥으로 던져지는 신앙의 박해를 피해 동굴을 파고 숨어들었던 이들의 생활 흔적이 남아있다. 시체 옆 지하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비참하고도 숭고한 순교현장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을 겪어야 했다. 그렇게 핍박을 받았지만 그들의 신앙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가정 교회 지도자들은 새벽 두 시에 일어나 찬물로 세수를 하고 방송을 들으며 말씀을 받아 적었다. 그리고 삼삼오오 모여 은밀하게 예배를 드렸다. 중국이 개방된 이후 공식적으로 확인된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1억 명을 넘어섰다.

러시아에서도 프롤레타리아 혁명 이후 극심한 핍박에도 복음이 뻗어나갔다. 영하 40도가 넘는 강가에 나가 얼음을 깨고 세례(침례)를 받는 성도들이 늘어났다. 지금도 복음주의의 정교회 예배에 가보면 서너 시간 동안 서서 기쁨과 감격의 예배를 드린다. 70여 년 공산 치하에서 금지했던 예배의 기쁨을 전심으로 불잡

고 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하여

지금으로부터 약 25년 전쯤, 복음방송에 근무할 당시였다. 하루는 남루한 차림의 여인이 찾아왔다. 수십 년 동안 지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모은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 하얼빈에서 산과 강을 건너 체포 위협을 무수히 넘기며 찾아왔다고 했다. 당시 중국이 개방되어 예배가 자유로워졌다고는 했으나 중국 정부가 통치하는 삼자교회에 그 피 같은 헌금을 갖다 바칠 수는 없는 일이었다. 문제는 잘못하면 외화 밀반출이었다. 이 돈을 누가 한국으로 가져갈 것인지 회의만 며칠 동안 열렸다고 한다. 순교를 각오하지 않으면 발걸음을 떼기 어려운 험난한 여정이었다. 결국 “남편도, 자식도 없는 제가 가겠습니다”라며 40대 초반의 미혼 여신도가 나섰다. 그녀가 당시 중국에서 집 몇 채 값에 해당하는 돈 목치를 허리에 차고 수많은 사선을 넘어 찾아왔다.

그 헌금에는 헌금을 보낸 할머니들의 눈물과 정성이 들어 있었다. 할머니들의 아들딸에게 어릴 적 눈길사탕 하나 사주지 않고 드린 연보(헌금)였고, 본인들은 한 시간 반이나 넘게 걸리는 공장을 걸어 다니며 차비를 아껴 예배 때마다 드린 희생금이었다. 찬양으로 예배가 시작되고 대표기도가 한창 진행될 즈음 예배당에 들어와 두리번거리는 현대 교회 교인들과 사뭇 대조되는 모습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핍박이 강할수록 더욱 강한 전파력을 지닌다. 아마 신앙의 진짜 그릇터기는 지금도 핍박 속에 순교의 피를 뿌리며 예배드리는 북한 지하 교회 성도들인지도 모른다.

한국 교회의 부흥은 흑암의 땅 조선에 복음의 씨를 뿌리기 위해 희생한 선교사들과 현실에 타협하지 않은 신앙 선진들의 순교의 피 위에서 피어났다. 최근 한국 교회가 내는 회개와 자숙의 목소리는 코로나19에만 국한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현대 교회의 몰량주의와 인본주의, 기복주의 신앙, 이벤트적 예배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고 있다.

출애굽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따라 앞만 보고 나아간 것처럼 주변 환경을 염려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주시길 것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 모진 고문과 순교로 예배를 지켜낸 신앙 선진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계절을 이 비대면 시대에 만들어보자. 지금은 삶으로 전도할 때요, 전심으로 예배할 때이다.

농어촌교회에서 온 편지

“온누리교회가 선물한 것은 희망입니다”

사회선교부 농어촌선교팀이 유례없이 긴 장마로 인해 수해를 입은 농어촌교회들을 두 팔 걷어 부치고 돕고 있다. 장마 피해가 특히 심했던 전라남도, 충청북도, 강원도, 경상북도 농어촌교회 13개 곳을 선정해서 수해복구지원금 2천4백만 원을 지원했다. 온누리교회가 보내준 지원금은 수해복구를 위한 밑거름이 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실의에 빠진 농어촌교회에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선물하고 있다. 농어촌선교팀의 긴급 지원으로 수해복구 작업에 여념이 없는 충북 진천 온빛교회와 경북 영주 빛마을교회에서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감사편지를 보내왔다.

/ 편집자 주

“다시 일어설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빛마을교회 성도들이 물에 잠긴 예배당 바닥을 쓸고 닦아내고 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작은 시골마을에 위치한 빛마을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희진 목사입니다. 아무런 연고도 없는 땅에 10년 전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신학생 때부터 나라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는 농촌이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27살 때 “경북 영주를 통해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고 싶다”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유학이나 대형교회에서의 사역을 뒤로 하고 시골교회 사역에 뛰어들었습니다. 지금도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최악의 상황들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빛마을교회의 지난 10년은 우여곡절의 연속이었습니다. 교회개척 1년 만에 마을 어린이들이 17명이나 모일 정도로 예배와 전도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사택이자 예배실로 사용하던 집의 월세를 두 배나 올리겠다고 해서 다 쓰러져가는 슬레이트 흙집으로 이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 와중에 어린이 성도들이 다 떠나고 한 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비록 열매 없는 사역이었지만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다행히 은퇴를 앞둔 어느 목사님께서 도와주셔서 30평짜리 작은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청년들 18명(신학생 12명, 일반 청년 6명)과 함께 생활훈련(살림, 노동) 및 예배, 순회 선교(군부대, 교도소, 미션스쿨)를 하며 선교적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교회를 건축한 지 1년 5개월 만에 예배처소이자 생활공간이었던 곳이 철도부지로

강제 수용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결국 철거되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교회가 철거되고 9개월 넘게 다른 곳을 떠돌았습니다. 지금은 폐교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아무런 기반이 없는 청년들이 10년 동안 일곱 번이나 이사를 하는 등 농촌에서 자리 잡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바라보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올해 여름 53일 동안 지속된 장마는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배처소가 몇 번이나 물에 잠기는 바람에 바닥의 물기를 닦아도 벽 전체에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수습이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설상가상 아이들을 돌보는 마을을 꾸꾸며 농업회사(사회적 기업)를 설립하려고 가꾸오던 식물들이 대부분 녹아 버렸습니다. 망연자실한 그 상황에서 온누리교회 사회선교부 농어촌사역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 같았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연일 교회가 지탄받는 기사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을 돌이켜보고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대하며 말씀대로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처럼 이 시대 청년들과 신학생, 어린이들이 더 많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두가 힘든 시절 선뜻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신 온누리교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이희진 목사(경북 영주 빛마을교회)

“온누리교회 덕분에 정말 행복합니다”



온빛교회 성도들이 수해를 당한 주방을 청소하고 있다.

안녕하세요. 저는 13년 전라남도에 충북 진천군에 온빛교회를 개척하고 열심히 목회하고 있는 윤진호 목사입니다. 이렇게 감사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유례없이 길었던 장마 기간에 집중호우가 내리쳐 도처에 많은 집들이 무너지고, 산사태와 침수를 겪은 이재민들이 큰 시련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온빛교회도 지난번 집중호우로 인해 예배당과 주방, 현관입구 등에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세찬 비가 내리치고, 교회 천정에서는 빗물이 줄기차게 떨어졌습니다. 빗물이 떨어질 때마다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받이로 받쳐놓은 양동이와 대야도 신경 쓰였습니다. 양동이와 대야에 고인 물이 넘치기라도 할까봐 제때 확인을 해야 했습니다. 빗물과 씨름하면서 ‘힘들겠지만 이번 장마가 끝나면 어떻게 해서든지 옥상 방수와 창틀 틈새를 꼭 보수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인가요? 때마침 문자메시지 한통이 와 있었습니다. 온누리교회 농어촌선교팀으로부터 온 문자였습니다.

“농어촌사역본부에서 충북지역 농어촌교회의 수해현황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는 연일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산사태나 건물 붕괴, 완전 침수 등의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닙니다. 큰 피해를 입은 교회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보다 훨씬 심각한 피해를 입고 마음고생하고 있을 교회의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떠올랐습니다. ‘어떡해야 하나’라는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고

민을 거둬주는 그 순간에도 예배당 곳곳에서 빗물이 계속 뚝뚝 떨어지는 빗물을 보고 있자니 제 마음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한시도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대야와 양동이에 물이 넘치는지 지키고 있는 제 모습이 우리 교회가 처한 현실 같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번에 보수공사를 해야만 다음에 빗물이 또 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염치불구하고 온누리교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온누리교회의 도움은 그 누구보다 발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소중한 지원금 100만 원을 신속하게 보내주셨습니다. 많은 헌금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온누리교회의 신속한 도움으로 인해 엄청난 힘을 얻었습니다. 수해복구를 위한 든든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나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너무 큰 은혜를 입게 되어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온누리교회 이재훈 담임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억해주시고, 관심과 사랑으로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작은 농촌 교회들이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서 베풀어 주신 섬김과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작은 농촌교회에 큰 울타리가 되어 주시는 온누리교회가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온누리교회에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늘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말로 다 표현 못할 큰 은혜와 사랑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 윤진호 목사(충북 진천 온빛교회)

대학청년부 비대면 선교사역 '미션 커넥트' 참가자들의 고백 그리고 은혜

하늘대학부 '블레싱 커넥트'

하늘대학부는 미션 커넥트 사역 중에서 터키, 네팔, 일본의 선교사님들을 축복하는 '블레싱 커넥트'를 실시했다. 선교사님들과 온라인으로 3주 동안 만나서 온라인 기도회를 열고, 마지막 주에는 선교사님 블레싱 행사를 개최했다.

처음에는 모든 과정이 낯설었다. 과연 이 사역이 무슨 감동이 있을까 의구심만 들었다.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해 직접 선교지에 갈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아쉬움이 새로운 형태의 선교 사역에 대한 기대보다 컸던 것 같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번에도 놀라운 방식으로 일하시며 나의 걱정과 망설임을 확신과 기쁨으로 바꿔주셨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아 대부분의 오프라인 사역이 중단된 지금 국내 혹은 해외에 발이 묶여 오도가도 못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온라인으로 만났다. 선교사님들에게 선교지와 현지 성도들을 위한 기도제목을 들으면서 내 마음에 오프라인 아웃리치 못지않은 도전과 감동이 가득 들어찼다.

터키 선교사님에게 지금 한창 예배당 확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작년 여름 그곳에 갔을 때 열악한 예배당 환경이 개선되도록 기도해달라고 하였던 선교사님의 말씀이 떠올라 정말 감사했다. 또한 현지 청년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있는지,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늘대학부 청년들과 선교사가 블레싱 커넥트를 통해 서로 교제하고 있다.

들었다. 성령 충만해진 터키의 청년들의 소식이 너무나도 반갑고 기뻐했다.

네팔 선교사님은 네팔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자 현황과 현지 교회들이 실질적으로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 등을 나눠주셨다. 인도와 중국 사이에서 네팔 정부가 외교적으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또 그로 인해 네팔 민족의 일상이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등을 들었다. 우리 팀원들은 물리적인 거리를 뛰어넘어 뜨거운 마음으로 네팔 땅을 위해 기도했다. 우리가 마치 네팔에 가 있

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일본 선교사님들도 현지 교회 소식을 전해 주셨다.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는 일본 성도들의 이야기였다. 사실 내 안에 일본에 대한 미움과 그로 인한 도의시함이 있었다. 그래서인지 나는 일본과 관련된 사역에 선뜻 신청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 블레싱 커넥트 사역을 하면서 부담 없이 일본 선교 사역에 동참할 수 있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미처 알지 못했던 사실을 알리고 하지 않았던 내 모습을 발견했다. 또한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 신실한 일하심을 보고 듣게 되었다. 일본 선교에 대한 마음이 이번 블레싱 커넥트 사역을 통해 얻게 된 가장 큰 수확이라고 생각한다.

블레싱 커넥트를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또 현지에 계신 선교사님들에게 선교지 상황을 바로바로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온라인 선교가 오프라인 선교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길어야 열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오프라인 선교와 달리 온라인 선교는 언제 어디서든 마음만 있으면 선교지에 접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면에서는 온라인 선교가 오프라인 선교보다 더 오래, 더 지속적으로 현장감을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선교 시대의 좋은 도구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하늘대학부 터키, 네팔, 일본 블레싱 커넥트 팀원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 네 팔람의 경우에는 공식적인 사역이 끝난 이후에도 격주로 온라인 기도회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현재까지 잘 진행되고 있다.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가 새로운 선교에 대한 고민을 가장 치열하게 하고 있는 지금, 블레싱 커넥트가 온라인 선교의 또 하나의 가능성이 될 수 있다고 느꼈다.

/ 이원기 형제(하늘대학부)

일본 선교사가 하늘대학부 청년들에게

“사막에서 만난 오아시스”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일본은 예배와 기도모임 등 교회활동에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많은 일본 교회들이 정상적인 예배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인 프레이즈란도교회도 새벽예배와 수요일예배, 금요일예배 등 모든 주중예배가 올해 3월부터 중단되었습니다. 주일예배만 최소한의 인원이 모여서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의 만남이 부담스러워지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는 것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점점 신앙생활과 선교활동이 위축되어지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어느 날 지난해 서빙고 온누리교회 하늘대학부 일본 아웃리치 팀장으로 수고했던 이재승 형제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하늘대학부에서 선교사들을 격려하고, 3주 동안 함께 영상으로 중보기도 하는 '블레싱 커넥트' 사역을 계획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으로 작년에 아웃리치를 왔던 하늘대학부 청년들의 얼굴을 다시 보니까 아웃리치 때의 감동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청년들이 함께 1박2일 연합캠프를 하고, 요양원에서 위로잔치를 하며 구슬땀을 흘리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산에 올



사진은 작년 하늘대학부 후쿠오카 아웃리치.

라가 일본 대학생들의 선교를 위해 부르짖던 하늘대학부 청년들의 열정 어린 얼굴들이 떠올라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지금은 한국과 일본의 왕래가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아웃리치와 우편발송이 쉽지 않습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선교지가 고립되고 있는 시기에 선교사와 선교사 자녀를 위한 비대면 선교사역 미션 커넥트는 사막에서 만난 오아시스 같았습니다. 영

상으로 얼굴을 보고, 지난 아웃리치 때의 감회를 나누며, 함께 일본 대학생들을 위한 기도회를 했습니다. 기도회가 진행되는 동안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임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멈추어진 것 같은 시간입니다. 교회에 성도들이 모이지 않아서 점점 쓸쓸해지고 있습니다. 전도의 활기가 소진되어 가는 이때 하나님께서 화상기도회를 통하여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선교가 멈추어진 것 같을 지라도 하나님은 선교를 결코 중단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일본 청년들을 사랑하는 하늘대학부 청년들의 순수한 마음과 열정이 전해졌습니다. 하늘대학부와 함께 기도하면서 일본 대학생들을 깨워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국 대학생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해 한 일관계가 악화되었을 때 하늘대학부 청년들이 일본 대학생들과 하나 되어 한일관계가 속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던 모습이 기억났기 때문입니다. 하늘대학부의 성숙한 자세가 있었기에 그 기도가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늘 대학부의 블레싱 커넥트 사역이 제 마음에 얼마나 큰 감동을 준지 모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식어가던 일본 대학생들에 대한 선교 열정에 다시 불이 붙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본 선교는 매우 어렵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놀라운 부흥을 이루어 가실 것을 확신합니다.

/ 이형석 선교사(후쿠오카)



코로나19, 가정예배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CGNTV 아빠.가. 출연 이후

우리 가족은 나와 아내, 열 살 아들 윤이와 둘째 일곱 살 딸 민이 오순도순 살고 있다. 아내와 나는 양재 온누리교회 영아 3부 교사로 섬기고 있다.

코로나19로 마지막으로 예배당 예배를 드린 것이 2월 마지막 주다. 그 이후로는 우리 부부와 아이들이 예배당 예배를 드린 적이 없다.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회학교에 가지 못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아이들의 시선과 마음이 신앙에서 벗어나려고 한데 우리 아이들은 다행히 올해부터 기독교 대안학교를 다니기 시작했다. 학교에 기독교 수업과 예배가 있어서 아이들이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는 시간이 전보다 늘었다.

주일이면 아내와 내가 먼저 거실에서 아침 9시 예배를 드린다. 그 다음에는 첫째와 둘째가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를 드린다. 영상 예배도 좋지만 예배당 예배에 비해 부족함이 있다고 느꼈다. 그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한 무엇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즈음 CGNTV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이하 아빠.가.)에 출연했던 영아부 교사들의 적극적인 추천이 있었다. 그때는 노트북을 앞에 두고 모여서 가정예배를 드리는 게 어색하고 낯설었다. 하지만 지금은 즐거운 경험과 추억으로 남아있다.



김현철 성도 가정은 가정예배를 통해 서로의 신앙과 속마음을 나누고 있다.

아빠.가. 출연 이전에도 가정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여러 번 가정예배를 드리기 위한 시도를 했었다. 주로 QT로 가정예배를 드렸는데 순서를 잘 몰랐고 지속적인 가정예배로 이어지지 않았다. 가정예배 드리기 어렵다는 막연한 생각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었다. 아이들과 대화하는 것 자체가 어색

할 것 같다는 선입견도 있었다.

그러나 CGNTV 아빠.가.에 출연을 거듭할수록 가정예배가 아이들이 즐기는 놀이 같았고, 매주 드리던 순예배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런 순서로 하면 되겠네’, ‘어렵지는 않네’, ‘주로 일상을 나누면 되는구나’ 점차 가정예배가 익숙해져 갔다.

CGNTV 아빠.가. 출연 직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예배를 드리기로 결심했다. 내가 없어도 아내가 가정예배를 인도하기도 했는데 흐지부지 된 것이 사실이다. 가정예배를 잊어버렸다가 차세대에서 실시한 ‘사순절 40일 성경쓰기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다시 간소하게나마 가정예배를 드렸다. 가족들이 둘러앉아 성경을 한 절씩 읽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생각해?’, ‘인상 깊었던 것은 무엇이니?’ 질문을 주고받고 기도제목을 나눴다. 요즘은 매 주일 오전 9시에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다.

가정예배는 가족들과 속마음과 기도제목을 나누는 유익한 시간이다.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기도제목에 물어난다. 아내도 마찬가지다. 가족이 한 절씩 성경을 소리 내어 읽으면 가정 안에 말씀이 쌓이는 기분이 든다. 드라마처럼 아이들이 달려오면서 가정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하지는 않는다. 아내가 가정예배를 드리자고 하면 아이들은 더 놀고 싶는데 마지못해서 하는 숙제처럼 느끼는 것도 같다. 하지만 가정예배의 끈을 놓지는 않을 거다. 어서 예배당 예배가 열려서 각자 오늘은 어떤 예배를 드렸는지 나누는 더욱 풍성한 가정예배를 드리고 싶다.

/ 김현철 성도(송파공동체)



코로나19, 가정예배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CGNTV 아빠.가. 출연 이후

가정예배의 중요성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실행하기가 참 어려웠다. 가정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막막하기만 했고, 가족들에게 “우리 가정예배를 드리자”고 말하기가 왠지 쑥스럽고 어색했다.

용기 내어서 가정예배를 드리자고 했다. 그런데 가족들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뿔뿔이 흩어지기 일쑤였다. 그럴수록 내 마음속에 ‘가정예배를 꼭 드려야 하는데 그래야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데 그렇다고 나 혼자 억지로 끌고 갈 수도 없고...’라는 안타까움이 생겼다. 그때까지만 해도 가정예배를 내가 시작할 수 있고, 인도할 수 있다고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러다 “나는 가정예배를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희 가정예배를 드리고 싶어요”라고 기도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온누리신문에서 CGNTV가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이하 아빠.가.)’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한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다. 나에게도 기도응답 같은 소식이었다.

CGNTV 아빠.가.를 시청하면서 가정예배에 대한 다양한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다. 가정예배 드리는 팀도 배웠다. 특히 CGNTV 아빠.가. 방



조은혜 성도 가족은 가정예배를 통해 회복을 경험하고 있다.

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노아, 노엘)이 가정예배를 자연스럽게 재미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CGNTV 아빠.가. 방송 덕분에 가족들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더 좋아하게 되었다.

우리 가정도 CGNTV 아빠.가. 방송출연 신청을 하게 되었다. 전혀 특별하지 않은 우리

가정이 하나님 은혜로 CGNTV 아빠.가. 방송에 출연하게 되었다. 아마도 우리 노아와 노엘이의 간절함이 통했던 것 같다.

CGNTV 아빠.가. 방송출연을 계기로 엄마와 아이들만 드리던 가정예배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아빠도 함께 드리는 가정예배를 시작하게 되었다. 남편 퇴근 시간이 늦어서 4주 동안

CGNTV 아빠.가. 방송출연에 온 가족이 다 함께 참여하는 것이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참여할 수 있었다. 가정예배는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기회였다.

언제 어디서나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하다. 우리 가정은 물론이고, CGNTV 아빠.가. 방송에서 본 다른 가정들도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큰 은혜를 받는 것을 목도했다. 하나님께서 가족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서로를 더욱 위하고 사랑하게 하셨음을 알 수 있었다. 세상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고군분투하는 남편과 아내, 아이들을 가정 안에서 드리는 가정예배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고 서로 더욱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다.

아직 가정예배 드리는 게 어색하고 쑥스러워서 가정예배 드리기를 주저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CGNTV 아빠.가. 프로그램과 함께 가정예배를 드리기를 추천한다. CGNTV 아빠.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더 많은 가정이 가정예배를 드리고, 그 가정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축복한다.

/ 조은혜 성도(인천 온누리교회)

코로나19, 말씀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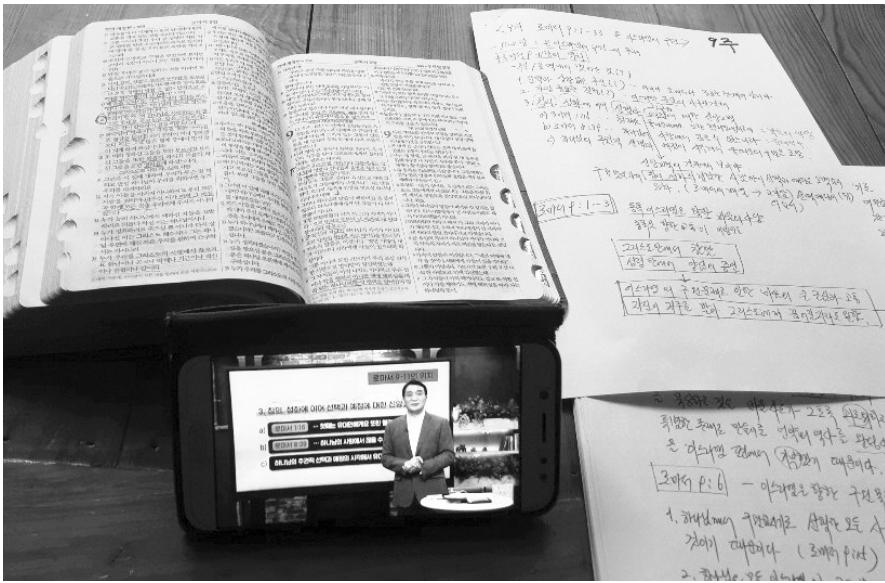
온라인 OBC
로마서

하나님의 의와 총체적 선교

로마서의 교리 부분인 1장에서 8장까지는 죄악 된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일임을 강조한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셨다. 또한 성령을 보내셔서 각자의 마음을 감동케 하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 이는 어떠한 인간의 자기 노력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고,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 자랑치 못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값없이 주시는 칭의로 말미암아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성화의 과정 중에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사 능히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시며, 긍휼하신 성품이다. 우리의 어떠한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한하심에 근거하기 때문에 모든 죄책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허물과 죄, 불법이 가리워졌으니 순간순간 사단의 고소에 휘둘리지 않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다.

9장에서 11장까지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역설을 통해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오묘함을 다시



송미선 권사는 온라인 OBC 로마서를 수강하며 복음의 본질을 깨달았다.

금 알게 되었다. 12장부터는 성령님 안에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로 새 창조된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며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한 당시 로마 교회가 겪고 있던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을 주님 안에서 하나 됨으로 극복하고, 복음의 본질을 깨닫고, 복음 중심의 선교적 교회가 되

기를 강조한다.

바울이 지향하는 선교는 ‘총체적인 선교’였다.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에는 구제선교를, 스페인 교회는 전방개척선교를, 로마 교회는 복음중심의 선교적 교회라는 큰 그림을 갖고 있었던 바울이었기에 로마서를 집필하면서 갈등을 겪고 있는 로마 교회

가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기를 원했다. 총체적 선교라는 개념이 새롭게 다가오면서 나뿐만 아니라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이 관점을 지향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온누리교회는 세 가지 영역의 선교를 어느 정도 균형 있게 지향하는 교회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로마서를 통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실천에 온 생애를 바친 바울의 숨결이 절절하게 느껴지고, 다시금 구원의 감격과 성령님 안에서의 자유 함이 충만해진 귀한 시간이었다.

기대감으로 시작했던 로마서 수강을 마치면서 교리와 실천이 분리될 수 없으며, 칭의와 성화, 영화는 고착된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역동적으로 흐르는 것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었다. 이제 죄가 지배하는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의가 지배하는 영역으로 옮겨졌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높은 담벼락으로 둘러싸인 안전한 영역에서 더 이상 죄가 지배하는 영역으로부터 들려오는 사단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 담벼락에서 멀리 떨어져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실천하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소망한다.

/ 송미선 권사(평택 온누리교회)

코로나19, 말씀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OBC
빌립보서

그리스도 닮아가는 긴 믿음의 여정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내려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회심하고 땅 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선교의 소명을 다한다. 또한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한다. 율법주의와 이단의 영향을 받게 된 빌립보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의 본질과 순수성을 다시 설명하고,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됨을 유지하며, 오직 주를 위해 살라고 격려하고 도전한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데 성도의 정체성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의미한다. 감사와 기쁨은 신앙의 순환적 진리이며, 감사와 간구는 영적 고리로 연결되어 있다. 바울은 투옥과 복음 전파의 사명, 생사를 초월하는 신앙고백, 복음에 합당한 신앙과 고난의 의미에 대하여 간증한다. 자신의 투옥과 고난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기회라고 했다.

늘 복음전파가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도 때와 상황을 생각하며 주저하는 내 모습이 부끄럽게 느껴진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도 받아야 하는데 축복만을 구하고, 복음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권리들을



김연희 권사는 온라인 OBC 빌립보서를 수강한 후 복음의 통로 되었던 바울의 삶에 도전받아 시간이 나면 전도지를 들고 나가 복음을 전한다.

아직도 많은 삶의 영역에서 취하고 있음을 돌이켜 보게 된다. 복음에 합당한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주의 것임을 고백하고 실제 삶에서 순간순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를 원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의 통로가 되었던 바울의 삶이 큰 도전이 된다. 전도대상자들을 위한 중보기도와 생활 속

에서 몇 장이라도 전도지를 전하는 일을 지속해야겠다.

바울은 내부 분열과 다툼의 아픔을 겪고 있던 빌립보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겸손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일치와 연합을 이루어 가라고 권면한다. 다툼이나 허영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사랑과 겸손으로 서로를

높여주는 공동체는 서로를 하나 되게 한다. 교회의 작은 셀인 순에서 먼저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성령 안에서 코이노니아를 이루고, 연합하도록 힘써야겠다. 흠어져 있고 개인의 울타리가 견고해진 이 시기에 빌립보서 공부를 통해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연합하기 위한 중요한 기본 원리들을 깨달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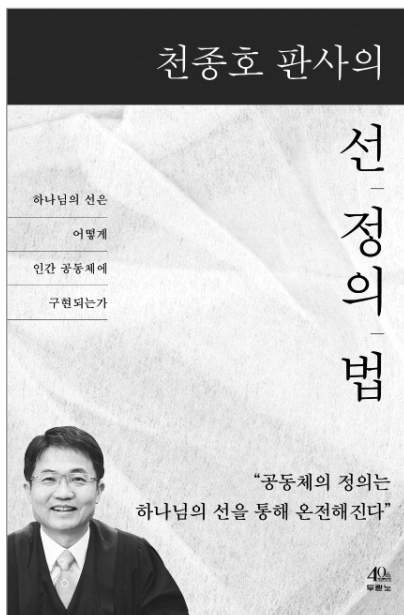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해 성화에 힘쓰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흠 없이 살아가야 한다.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목관계를 친밀하고 인격적으로 계속 완성시켜 나가라는 의미다. 성화 과정은 우리의 의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다스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긴 믿음의 여정이다.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겠다.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고 유지하는 삶을 위해 지속적인 걱정을 중단하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항상 감사함으로 하며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겠다.

/ 김연희 권사(평택 온누리교회)



책 읽어주는 목회자

공동체는 ‘선택’이 아닌 ‘생명’



천중호 판사의 선, 정의, 법
천중호 저 | 두란노 | 16,000원

이 책의 저자는 판사로서 올바른 선의 기준을 바탕으로 소년범들에게 판결하는 모습과 그 내면에 담긴 따뜻한 시선으로 인해 ‘호통판사’로 널리 알려졌다. 저자의 직업

과 책의 제목만 보면 우리에게 낯선 법이라는 개념과 법학에 대해 저술한 책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놀랍게도 이 책은 완벽하게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공동체다움을 회복하고, 그것을 지켜야 하는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저자는 왜 본인의 직업과 학문적 전문성이 있는 법이 아니라 공동체에 대해서 책을 저술하면서까지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 그것은 저자가 법원에서 마주하게 된 모든 죄의 문제와 더 나아가 사회의 법과 질서가 무너진 상황에서 사회적 고립으로 발생한 성경적 공동체 해체와 그것을 회복할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이다.

세상과 사회에서는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비틀어보는 비판적인 사고와 ‘나’라는 극히 제한적이고 개인적으로 한정된 개체의 가치관 정립, 그리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자기PR’과 노력이 개개인의 정체성을 확립시켜줌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한다. 인권이라는 이름하에 이 모든 개별적인 가치관의 자유로운 확립을 권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결국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이데올

로기를 문화, 사회, 교육 등 다양한 분야를 통해 적극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객관적으로 현재 사회를 바라보면, 뉴스와 주변의 생활환경에서 개인과 개인이 각자의 가치관으로 인해 대립하고 분열하는 모습을 아주 쉽게 자주 볼 수 있다. 심지어 그 대립에서 공동체를 정의하는 기준이 사람이 아니라 이데올로기다.

저자는 하나님의 선을 통해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모습처럼 공동체가 공동체다워짐으로 말미암아 약자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사회,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사회, 공동선을 회복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공생에 기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루셨던 공동체를 보아도 이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예수님이 바라고 원하며 실제로 만드셨던 공동체는 아동 친화적이며, 여성 친화적이고, 탈권위주의적이며, 사회적 약자 존중의 공동체이며, 동시에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올 수 있는 열린 공동체였다. 이 공동체를 통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인류사 전체에 끼치신 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다.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간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그분의 말씀이었고 선이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자연과 사회 속에서 공동체 없이는 사람다운 삶을 살기 어려운 환경적인 존재이자 사회적인 존재이다. 피조물로서 ‘나’라는 정체성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나’를 이루는 주변의 환경과 공동체를 이데올로기와 가치관에 따라 재단하고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보고 이해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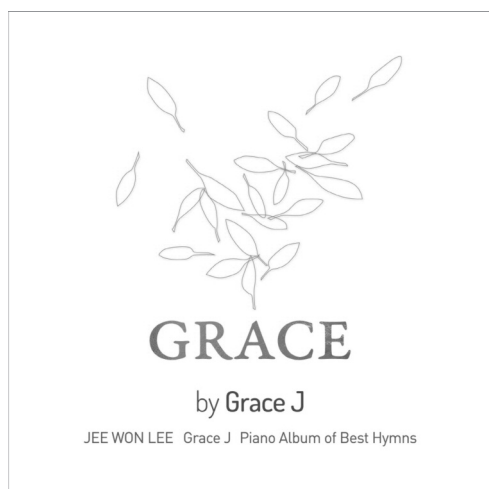
우리는 대립하고 분열하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협력하여 선을 행하며 공동체를 이뤄야 한다. 이것이 저자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공동체가 ‘선택’이 아닌 ‘생명’인 이유다.



윤준석 전도사
(열린새신자매)

기독교 음반

생명과 호흡을 담아 부르는 찬송



‘GRACE by 이지원’

이렇게 작은 손으로

아버지 제 마음과 노래와 사랑을 받아 주옵소서

피아니스트 이지원은 NGO 더멋진세상 실행위원이다. 가난과 질병, 자연재해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구촌 어린이와 이웃들을 돕는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GRACE by 이지원 앨범 수익금 전액은 NGO 더멋진세상에 후원된다.

앨범 ‘GRACE by 이지원’은 쿠팡 등 온라인스토어에서 구매할 수 있다.

클래식 피아니스트이자 CCM 연주자 이지원이 16곡의 찬송가를 담은 앨범 ‘GRACE by 이지원’ (Grace J Piano Album of Best Hymns)이 큰 호응을 받고 있다. 한국인 최초로 두 번 그라미상 베스트 엔지니어상을 받은 황병준 엔지니어의 콜라보레이션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드러내는 한 편의 드라마 같다”는 이지원의 피아노 연주곡백과 더불어 한국어, 영어, 일어 번역으로 이루어진 그의 신앙고백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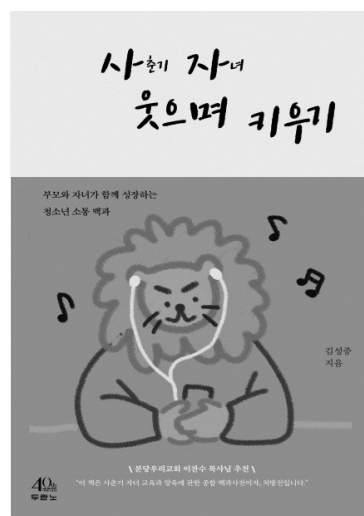
‘이렇게 행복과 감사의 순간을 주시니

저는 어떻게 무엇으로 올려드려야 할까요

연약한 인간의 능력과 작은 몸으로

두란노 신간

완벽한 부모는 없다! 배우는 부모가 되라!



〈사자 웃으며 키우기〉
김성중 저 | 두란노 | 14,000원

집안을 어슬렁어슬렁 걸어 다니는 예민한 사자와 싸우지 않는 방법이 무엇일까?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들이 가진 공통적인 고민 중 하나다.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청소년사역을 하면서 인생의 선배로서 청소년들의 고민과 어려움을 들어주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며 아픔을 안아주고 있는 김성중 목사가 청소년 소통백과 〈사자 웃으며 키우기〉를 출간했다.

저자가 이 책을 통해서 부모에게 요구하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다. ‘친밀한 관계’와 ‘멘토’이다.

저자는 완벽한 부모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배우는 부모가 되라고 조언한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친밀한 관계 형성’과 ‘멘토링’을 제안한다.

자녀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자녀 앞에서 부모 스스로 성찰하고, 자녀들과 대화하며, 자녀들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라고 권한다.

자녀들과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었으면 그 다음

순서는 멘토링이다. 저자는 자녀들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와 진로, 학습, 신앙을 가르치려고 잔소리 하지 말고, 부모가 먼저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라고 조언한다.

“갓난아기였을 때 귀여운 모습과 일방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찾기 어려울 지라도 우리는 자녀를 사랑한다. 언제든지 우리는 자녀에게 저줄 수 있어야 한다. 문제의 원인을 부모 자신에게 돌리고,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찾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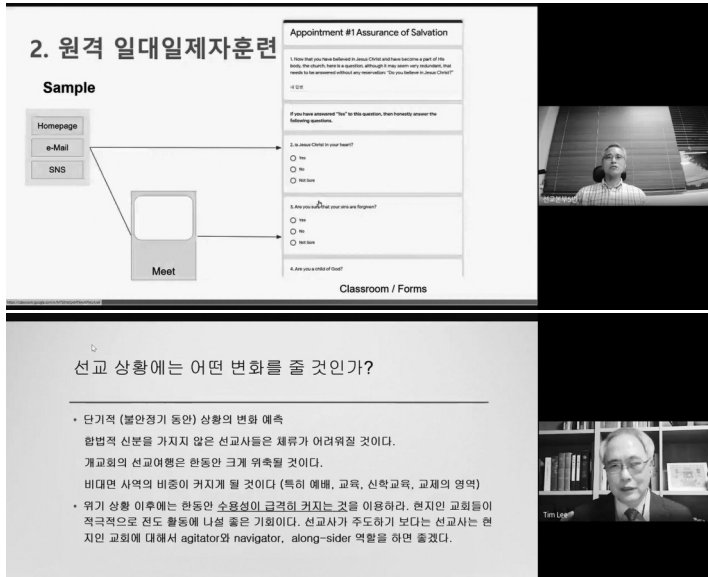
2000선교본부, 비대면 원격사역 교육 실시

유튜브 영상제작 기술, 구글지 시트 활용법

2000선교본부가 비대면 원격사역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6월부터 시작한 비대면 원격사역 교육은 오는 9월 18일 종강한다.

비대면 원격사역 교육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교사들의 적응과 원격사역 강화를 위하여 실시하고 있다. 온누리교회 안팎의 전문가들이 양질의 강의를 이어가고 있다. 파송 선교사들과 선교리더십들이 비대면 원격사역 교육에 참여하면서 시대적 변화를 정확하게 읽고,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IT기술을 습득하고 있다. 유튜브(YouTube) 영상제작 기술, 구글지 시트(Google G-Suite) 활용법 등의 기술을 익혔다. 구글 지시트는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활용하는 비즈니스 도구다. 장소, 시간, 기기에 구애받지 않고 협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번 교육에서는 구글 지시트의 교육적 활용에 초점을 맞췄다.

선교사들이 비대면 원격사역 교



2000선교본부는 포스트코로나시대 선교사들의 IT사역 역량 강화를 위해 비대면 원격사역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육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한 유튜브 영상을 2000선교본부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찬송 선교사(아프리카국)는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선교가 무

엇이고, 새로운 시대의 선교를 완수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과 마음자세를 갖춰야 하는 지를 배운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에스라 프로젝트’ 필사지 제출 2주 남았다

9월 27일까지 공동체 순장, 총무, 목회행정실 제출

온누리 공동체 성경필사 ‘2020 에스라 프로젝트’ 필사지 제출 기한이 2주 남았다. 9월 27일(주일)까지 자신의 필사 분량을 완료한 필사지를 공동체 순장이나 총무에게 제출해야 한다.

공동체 총무들은 성도들이 제출한 필사지를 성경 한 권으로 취합해 10월 11일(주일)까지 각 캠퍼스 목

회행정실에 제출하면 된다.

교역자 및 장로, 예수제자학교(JDS), 공동체에 소속 안 된 성도는 9월 27일까지 각 캠퍼스 목회행정실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 서빙고 02-3515-3744, 3263

양재 02-570-7356, 7918

각 캠퍼스 목회행정실

/ 정현주 기자

차세대 ‘가정 소그룹 가이드’ 영상 제작

차세대사역본부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

차세대사역본부에서 ‘가정 소그룹 가이드’ 영상을 제작한다. 차세대 가정 소그룹 가이드 영상은 주일 설교 본문에 맞춰 ‘노헤미야’를 주제로 부모와 자녀가 가정 소그룹 시간에 함께 할 수 있는 간단한 게임, 기도방법, 주제영상 등을 제시하며

가정예배를 돕는 역할을 한다.

차세대 가정 소그룹 가이드 영상은 예수님의꿈아이, 꿈이자라는땅, 파워웨이브 등 차세대 부서별로 제작된다. 차세대사역본부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온라인 바이블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CDC, 가스펠프로젝트신약2, Why Mission?

대학청년부 온라인 바이블 아카데미 하반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CDC(Christian Discipleship Course)는 9월 16일(수)부터 11월 11일(주일)까지 진행된다.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등록 세례교인으로 교역자 추천을 받은 청년이 대상이다.

가스펠프로젝트 신약2는 9월 16일(수)부터 12월 16일(수)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시작된다. 교

재 <가스펠프로젝트 신약2>(두란노)를 꼭 준비해야 한다.

Why Mission?은 9월 16일(수)부터 11월 11일(주일)까지 진행된다. <Why Mission?>(두란노) 교재를 꼭 준비해야 한다.

문의: 02-3215-3759,

각 공동체 담당교역자

/ 홍하영 기자

‘CGN을 부탁해’ 마감 및 수상작 발표 연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제작 환경 악화 이유

CGNTV에서 주최하고 있는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영상 공모전 ‘CGN을 부탁해’ 마감 일정과 수상작 발표 일정이 연기 된다. 9월 4일 예정이었던 마감 일정과 9월 15일 예정이었던 수상작 발표 일정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제작 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연기하게

되었다. 추후 일정은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CGN을 부탁해는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를 대상으로 ‘크리스천 청년들을 위한 복음을 담은 콘텐츠’ 등 세 가지 주제로 실시 중인 영상 공모전이다.

문의: 02-3275-9322

대전 온누리교회 창립 17주년

대전 온누리교회가 지난 9월 6일(주일) 창립 17주년 감사예배를 드렸다. 대전 온누리교회 창립 17주년 감사예배는 주일 오전 9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영상 메시지를 보내 대전 온누리교회 창

립기념주일을 축하하고, 성도들을 축복했다.

대전 온누리교회는 지난 6월에 세종시 복음화와 차세대 및 젊은 부부 부흥을 위하여 세종교육관을 설립했다.

/ 홍하영 기자

이슬람선교학교 제7기 ‘WHY 무슬림?’

이슬람선교학교 제7기 ‘WHY 무슬림?’ 스쿨이 개강한다. 9월 29일부터 11월 3일까지 6주 과정으로 매주 화요일 저녁 유튜브에서 진행된다.

강의 자료가 제공되고, 조별 나눔과 교제는 별도의 화상프로그램으로 매주 화요일 저녁 8시부터 1시간 이내로 진행된다. ‘WHY 무슬림?’ 스쿨에서는 무슬림의 이해, 이주민 선교와 선교 사례 등을 배울 수 있다. 참가신청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등록비는 무료.

문의: 010-9064-6080

두란노어머니학교 유튜브 채널 봉사자 모집

두란노어머니학교에서 유튜브 채널 봉사자를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동영상 촬영 및 편집이다.

두란노어머니학교 유튜브 채널은 성도들의 사연을 신청 받아 멘토와 함께 나누면서 가정 속 고민을 해결하는 ‘멘토와 함께하는 티타임’, 좋은 아내, 좋은 엄마가 되는 방법을 배우는 ‘행복한 아내, 좋은 엄마가 되는 길’, 코로나19로 만날 수 없는 두란노어머니학교 스태프들과 온라인으로 만나는 ‘지금 만나러 갑니다’ 등이 있다.

문의: 02-2182-9114

일본어예배부, 온라인으로 선교한다

온라인 일대일 양육자반, 온라인 OBC 과정

일본어예배부가 온라인으로 일본 선교를 이어가고 있다. 일본어예배부가 지난 9월 9일(화) 일본 고베 오쿠보홀리차펠(다카하시 정숙 목사 시무) 리더십 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일대일 양육자반 수료식을 개최했다. 오쿠보홀리차펠은 올해 3월 한국을 방문해서 일대일 양육자반 과정을 수강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취소되었다. 1년 전부터 일대일 양육자반 수료를 준비해온 오쿠보홀리차펠 리더십들의 실망이 클 수밖에 없었다.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일본어예배부에서 온라인으로 일대일 양육자반 과정을 해보자고 제안했고, 지난 5월부터 4개월 동안 온라인 일대일 양육자반을 실시했다. 오는 9월 17일부터 일본어예배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온라인 OBC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1 과정에도 오쿠보홀리차펠 성도 20명이 참석하도록 권유했다.

김철희 목사(일본어예배부 담당)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문이 닫힌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문을 열어주셨다”고 고백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온라인 일대일 양육자반 간증

“귀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현대 크리스천들에게는 제자훈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훈련을 받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주일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는 위험합니다. 전투력이 없는 크리스천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철희 목사님의 이 말씀에 몸과 마음이 사로잡혔다. 마음을 찌르는 말씀이었기 때문이다. 또 김철희 목사님께서 “훈련을 받으려는 성숙한 신도들이 있는 것이 오쿠보홀리차펠의 저력입니다”라고 말씀해주셨을 때는 소름이 돋았다. 온누리교회의 귀한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큰 선물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꿈을 꾀다. 온라인 일대일 양육자반을 통해서 오쿠보홀리차펠이 주님의 교회로 거듭나도록,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줘서 감사하다.

/ 사예기 키요미 성도(고베 오쿠보홀리차펠)

창조신앙스쿨 참가자 간증



/ 최혜선 성도(양천공동체)

창조신앙스쿨 수강 기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지식의 향연과 함께 쏟아지는 믿음의 고백들 속에서 주님의 살아계심과 동행하심을 느낄 수 있었다.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어려웠다. 하지만 기대보다 깊은 내용들로 꽉 채워져 있어서 이번 학기에 배운 내용을 복습하는 것으로도 나만의 새로운 학기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 좋은 부담감이 생겼다.

1주차 첫 시간에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하나님을 만났다. 2주차에는 우리를 설계하신 하나님과 진화론의 한계를 알게 되었다. 3주차에는 노아의 방주에 나타난 하나님의 탁월하심과 노아의 홍수로 인한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4주차 강의는 서적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힘든 내용들을 준비해주셔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어려운 이론을 쉽게 해석해주셔서 새롭게 알게 된 부분이 많다. 5주차 강의도 무척 기대했던 만큼이나 유익했다.

추천도서 <궁금해? 궁금해!>는 오랜 갈증을 해소하는 시원한 생수 같았다. 초보자도 즐겁게 읽을 수 있도록 배려된 꽤 두꺼운 책의 구성이 인상적이었다. 질의문답 형식의 편집은

오랜 갈증 해소하는 시원한 생수

무척 많은 내용을 이해하고 정리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창조론과 진화론 사이의 여러 논쟁들이 기억에 남는다. 또한 진화론을 거부하고 현대 과학의 발전에 기여했던 기독교 과학자들인 찰스 배비지, 니콜라스 스테노, 안톤 판레벤후크, 알렉산더 플레밍, 로버트 보일, 사무엘 모스, 아이작 뉴턴, 루이 파스퇴르 등을 확인할 수 있어서 기뻐다. 수학자들의 계산에 의하면 가장 단순한 단백질 하나가 우연히 발생할 확률은 1/10의 130승 정도로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는 결론과 둥근 지구(이사야 40:22), 무한한 우주(이사야 55:9) 질량보존의 법칙(베드로후서 3:7), 엔트로피의 증가법칙(시편 102:25-27) 등 성경 기록의 과학적인 정확성은 통과하고 명쾌했다. 진화론이 나치즘의 뿌리인 만큼 진화론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알고, 경각심을 가지고, 말씀 안에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강의를 통해 주께서 만드신 세상을 신앙의 눈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과학을 통해 나의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 강사님들과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여러모로 수고해주신 스태프들께 감사드립니다.

온라인 OBC 로마서 참가자 간증



/ 이연미 성도(동대문중앙공동체)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놀라고 어지럽다. 이것은 하나님의 ‘멈춤 사인’이 아닐까 생각했다. 작년 8월 공동체 아웃리치 저녁집회에서 목사님께서 ‘임박한 심판’을 주제로 설교하셨는데 그때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기도를 올린 것이 생각났다. 우리의 죄악이 차고 넘쳐 더 이상은 지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만 같았다.

의지할 것은 오직 생명의 말씀뿐이라 여겼다. 그래서 온라인 OBC 로마서 과정을 수강하기로 했다.

사실 나는 야근과 주말근무가 일상인 상황이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업무 일부가 강제로 멈췄다. 그 덕분에 온라인 OBC 로마서 과정을 신청할 수 있었다.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경험하는 시간이었다.

“우리가 알게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 8:28).

온라인 OBC 로마서 과정은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였다. 간절함과 기대감이 가득했다. 과정이 예상보다 어렵고, 힘들었다. 수고에 비해 말씀을 삶에 적용한 경우가 미미

의지할 것은 오직 생명의 말씀뿐

해서 강의 막바지에는 풀이 죽기도 했다. 돌아봤더니 꽤나 길어진 탈진상태를 벗어나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는데 그게 잘 되지 않고 있던 차에 로마서 공부를 하면서 단번에 날아올라 푸른 초장으로 가고 싶었던 과한 바람이 원인이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회복의 길로 나아가고 있지만 더디기만 한 나를 기다려주시는 주님을 배웠다. 지금, 여기의 삶을 훈련하며 용기를 내보았다. 넉 달 가까운 시간을 로마서와 함께 하며 주님을 따르고자 애쓴 작은 버둥거림도 귀히 여기시고, 붙드시고, 이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신원석 목사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로마서 말씀 자체 뿐 아니라 온라인 OBC 로마서 강의를 들으며 과제를 하고, 피드백을 받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교회, 공동체, 영적 지도자의 소중함을 깊이 경험할 수 있었다.

이제 로마서를 배우는 여정을 마치고, 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삶의 여정을 다시 시작한다.

'에스라 프로젝트' 참가자 간증



/ 민정원 성도(요코하마 온누리교회)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시 119:92-93).

사람을 보고, 상황을 보고, 나를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저 주의 법인 하나님 말씀만 믿고 의지하며 순종할 때 주의 말씀이 즐거움이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한다.

내 나이 어느덧 68세가 됐다. 밤을 새워가며 일하며 손이 떨려오는 수전증에 매일 약을 복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에스라 프로젝트’ 성경필사에 참여하자는 제의가 나에게 주는 기회 같았다. 전부터 성경필사를 해보려다가 도중에 포기해버리곤 했기 때문이다. 에스라 프로젝트 필사지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와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 아시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떨리는 제 손을 잡아주세요.”

다음 날 밤새워 일을 마치고 지쳐오는 육신의 피로감에 지하철에서 눈을 감고 하나님 아

버지를 불렀다. 그리고 마음으로 찬송가를 조용히 불렀다.

집에 도착해서 잠깐 눈을 붙이고 일어나 아파오는 머리를 감싸 쥐고 책상에 앉아 요엘서 1장부터 2장, 아모스 1장부터 5장을 세 번 읽었다. 펜을 잡으니 손이 후들후들 떨려왔다. 나는 떨리는 손을 붙들고 또 기도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 말씀을 주신 아버지의 마음을 제게 주세요.”

큰 호흡을 하고 조용히 펜을 잡았다. 요엘 1장 1절 말씀 “브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를 적을 때였다. 그 순간 “정원아! 내가 너에게 주는 나의 말이란다”라는 음성이 들려왔다.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내 마음에 형언할 수 없는 평안과 감동이 밀려왔다. 마음속으로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연신 외치며 말씀을 계속 써 내려갔다. 정말 꿀송이보다 단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깊이 파묻혔다. 어느새 아침햇살이 환하게 비추고 있다. 눈이 부시다. 밤새 한 글자 오차 없이, 그리고 손 떨림 없이 필사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일대일제자양육 수료 간증



/ 박수연 성도(마포공동체)

목마른 영혼이 단비로 촉촉이 젖는 기쁨과 힐링

일대일제자양육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다. 이전에 알고 있던 말씀들이 구슬처럼 일목요연하게 꿰어지는 기쁨도 누렸다.

첫 번째 만남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 열망을 느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삶에 대해 구체적으로 배우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롬1:16)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원의 문이요, 길임을 믿게 되었다.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말씀, 기도, 교제, 전도, 성령 충만한 삶, 시험을 이기는 삶, 순종하는 삶, 사역하는 삶 등을 주제로 한 주 한 주 말씀을 배울 때마다 신실하게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 8:28)는 말씀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말씀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꿀송이 같은 말씀과 따뜻한 중보기도, 아낌없는 조언으로 양육해주신 박윤자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이면 분주한 일상에서 벗어나 책상 앞에 앉아 온라인으로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 주님께서 많은 위로와 축복으로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일대일제자양육 과정은 피곤한 육신이 간곳없고 목마른 영혼이 단비로 촉촉이 젖는 기쁨과 힐링의 시간이었다.

과제를 조금 더 성실히 이행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하지만 말씀 통독과 말씀 묵상의 소중함을 더욱 깨달았다.

한줄기 빛이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며 날마다 순종의 삶을 살기를 기도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나 자신과 다른 지체들을 귀히 여기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한다.

장로들의 릴레이 기도

권사칼럼

회개와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한 기도

“어릴 적 꿈에 도전하고 싶다”



조형진 장로
(장로중보교회 대표)

“다만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을 뿐이다. 너희의 잘못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사 59:2).

오늘 우리와 교회에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매일 매일 삶에서 우리가 지은 죄, 또 짓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무릎 꿇고 조용히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생명을 경시하고 낙태와 동성애를 인권, 자유,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하며 보이는 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았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이웃을 돌보지 않았던 이기심과 무관심, 교만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세상 이론과 우상을 만들고 섬기며 탐욕으로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한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자비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죄악을 용서하시고 고쳐 새롭게 하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재난이 가져온 시대의 아픔 속에서 더욱 영원을 소망하고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소서. 모두가 이 재난을 통해 영원하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소서. 하나님의 진노와 사랑을 깨닫게 하소서. 나라와 교회가 위기 가운데

데 넘어지지 않게 하소서. 역사의 고비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에 쓰임 받아온 한국이 재난의 위기에서 다시 일어나 승리하게 하소서. 이를 위해 백신과 치료제를 속히 개발해 확진판단 받은 자들을 온전히 회복하게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살아나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모든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깨닫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악에서 돌이키는 결단과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 이 땅에 만연한 증오와 비난과 미움이 사라지고 평강과 화평이 임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영적 무력감에서 벗어나 복음의 가치와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인 거룩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하며, 내적 성장과 영적 열매가 풍성한 예배공동체로 세상의 소망 되게 하소서. 사회적 약자를 섬기는 도구 되게 하소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 무지를 용서해주시고 거듭나게 하옵소서.

온누리교회가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를 지향하며 지난 35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좇아 신실하게 복음증거와 선교에 목숨 걸고 세상과 열방에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 헌신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도 모두가 온 마음과 영혼과 힘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충만케 하셔서 의와 평강과 기쁨으로 세상에 선했던 영향력을 끼치고, 거룩하고, 성결케 하옵소서. 이재훈 담임목사님과 부교역자들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아름다운 목양과 목회를 감당하게 하옵소서. 세상에 구원의 기쁨과 축복과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수미 권사
(남양주 온누리교회)

나는 10년째 BEE세미나 인도자이자, 새가족 3주차 교육을 맡고 있다. 여러 사역으로 초신자들을 만나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내 마음 한 구석에 부끄러운 점이 있었다. BEE세미나를 인도하면서 아닌 척했지만 내 속에는 창조와 성경에 관한 의문이 상당히 많았다. 나도 잘 알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는 것을 설명하고 가르치려니 어려움이 있었다.

성경 첫 장부터 궁금한 점이 정말 많았다. 창세기에는 신묘하면서도 엄청난 하나님의 주권이 묘사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넷째 날 낮과 밤을 정하셨는데, 첫째 날부터 밤과 낮이 언급된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또 하나님께 벌을 받고 도망치는 가인을 누가 죽인다는 것인지, 왜 하나님은 가인, 아벨, 셋 외에 아담의 다른 아들에 대해서는 성경에 말씀하지 않으시는지, 특히 지구의 나이가 6천 년 정도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알 수 있는데, 신문과 방송에서 방사성동위원소로 측정하면 지구의 나이가 왜 수억 년이라고 나오는지 등이 궁금했다. 성경에는 명확히 알 수 없는 부분이 참 많았다.

이에 대한 명백한 설명은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알겠거니 하며 하나님께 특별히 설명해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고 있었다. 그러나 BEE 세미나 과정을 인도할 때 학생들에게서 이런 질문들이 나오고, 학생들이 진지하게

여기고 있는 관심사이므로 정확하게 알려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종종 있었다. 알지 못하는 내용을 그저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궁금증을 창조신앙스쿨 강의를 들으면서 해소할 수 있었다.

창조신앙스쿨 추천도서 <궁금해? 궁금해!>를 읽어봤더니 내가 늘 궁금해 하던 질문에 대한 해설들이 조목조목 있었다. 누군가 물어볼 만한 질문이 거의 다 수록된 책을 이제야 알게 된 게 다행이면서 한편으로는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창조신앙스쿨 강의에서 함께 올려주신 유튜브 영상도 정말 유익했다.

창조신앙스쿨 강의를 들으면서 어릴 적 생각이 참 많이 났다. 중학교 2학년 때 아빠의 서재에서 찾아낸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중력>이라는 책에 감명을 받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까지 빠져 있었다. 한참 감수성이 예민할 나이에 다른 아이들과 달리 나는 핵융합인 태양에너지와 핵분열의 우리놈이 너무 궁금했다. 그런데 시원하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다.

어릴 적 나는 쿨리 부인처럼 사는 것이 꿈이었다. 천문학을 전공하려고 했지만 엄마와 담임선생님의 반대로 수학과에 진학했다. 아무리 돌아가려 해도 그 길을 찾아갈 기회가 점점 멀어지고, 독립된 성인으로 살기 위해 교사가 되었다. 어릴 적 꿈은 마음 한구석에 묻어둔 채 지금까지 수학을 가르치고 있다. 그런 나에게 창조신앙스쿨 강의는 어릴 적 꿈을 일깨워줬다. 현재 사역에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기도 했다. 성경을 깊이 아는 것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어릴 적 꿈에 계속 도전하고 싶다. 귀한 기회가 있는 온누리교회 성도가 된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하다.

신앙에세이

말씀 읽고 묵상해야 하는 강력한 이유



김정희 목사
(양재 온누리교회)

하나님의 음성듣기를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무엇보다 매일 말씀 앞에 앉아 묵상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왜 말씀 묵상이 중요할까? 첫째, 성경이 하나님을 계시해 주는 책이기 때문이다. 위조지폐 감별하는 사람들이 가짜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진짜 지폐를 꾸준히 보고, 익히는 시간을 보내야 한다. 하나님 음성도 그러하다. 내 안에 혼재해 있는 여러 가지 소리 중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정확하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나를 알고 싶으면 그 어떤 것에서 찾지 말고 성경을 펼치라! 성경이 바로 나를 보여주는 책이다!” 성경말씀은 하나

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하여 두 가지 유익을 준다.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고 느끼게 하며, 성경적 세계관과 가치관을 세워준다.

우리는 상대가 하는 말의 내용과 더불어 말하는 사람의 성품까지 전달받는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녹아 있어서 말씀을 읽을수록 하나님의 성품의 결이 어떤지를 전달받는다. 성경읽기와 묵상을 꾸준히 하는 사람은 자신의 내면에서 들리는 여러 소리가 있다 해도 하나님 음성의 성품과 결을 알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해서 들을 수 있다.

둘째, 성경적 세계관을 갖출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성경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원칙과 방향을 알게 해준다. 성경말씀은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 그 자체이다. 성경을 읽다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말을 걸어오시는 것을 느끼게 된다. 문자적으로 기록된 말씀인 ‘로고스의 말씀’

이 말씀을 읽는 나에게 구체적으로 하시는 말씀으로 경험되는 ‘레마의 말씀으로’ 말을 걸어오신다. 바로 이 지점이 성령님께서 말씀을 읽는 나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지점이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요 14:26).

셋째, 성경말씀은 성령의 검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네 마음을 지켜라. 네 마음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잠 4:23).

우리는 마음을 소홀히 여기지만, 사단은 우리 마음의 중요성을 잘 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노리면서 우울, 분노, 자기자랑, 미움 같은 생각을 넣어준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이 아닌 다른 음성을 따라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결정하도록 만들고자 한다. 이것이 사단의 목표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공격하는 사단을 대항할 수 있는 무기를 주셨

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다. 에베소서 6:17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때 성령의 검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하셨다. 사단은 우리가 말씀의 검을 드는 순간 두려워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양날 선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 뱉는다”(히 4:12).

예리한 양날의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이 구분되기 시작한다. 검과 같은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도의 숨겨진 부분까지 살살이 쪼개어 꿰뚫어 보게 해주기 때문이다. 성령의 검과 같은 말씀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속이고 위장하며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숨어 들어와 흔들 어도 사단의 소리들을 찾아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하는 강력한 이유이다.



주일강단

〈3면에 이어〉

선한 일을 시작하려면

그러나 그가 밤을 정찰의 시간으로 선택한 것은 뻔처럼 지혜로운 일이었습니다. 그가 밤에 움직여야 할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느헤미아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혼자 온 것이 아닙니다. 그를 도울 많은 이들이 함께 왔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지원 때문입니다. 군대장관과 마병들까지 왔습니다. 당시 군사의 호위를 받으면서 왔다는 것은 페르시아 왕의 신임을 보여 주는 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았을 겁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의 감시를 받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아는 눈에 띄지 않는 밤에 최소한의 안내 위원만 동행하고, 숨소리가 큰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순찰을 나갔습니다. 느헤미아는 지혜로운 지도자였습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불필요한 고난이나 소모적인 논쟁에 휩싸이지 않도록 했습니다. 대적들과 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싸움을 최대한 피한 것입니다. 해야 할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이 잘 때 깨어서 정찰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쉴 때 일한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의 새벽을 가져오는 지도자들에게는 새벽을 준비하는 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주목할 단어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입니다. 느헤미아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매우 궁금했을 것입니다. 3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묵 속에 머물며 그는 기도했고, 준비했고, 앞으로 할 일을 하나님께 먼저 아뢰는 것입니다. 지도자에게는 고독한 시간이 있습니다. 이 고독 속에서 비전이 잉태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 전에 하나님과 나누는 만남 속에서 앞으로 일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느헤미아는 자신이 할 일을 사람들에게 떠벌리듯, 자랑하듯 서둘러 말하지 않았습니다. 3일 동안의 침묵, 밤의 정찰,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이 기간이야말로 느헤미아에게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새벽을 깨우기 위한 밤의 준비, 사람들을 이끌어 내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고독의 시간은 비전이 잉태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감이 주어지는 시간이고, 현실을 파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느헤미아가 순찰해 본 결과 성벽은 다 무너져 있었고, 성문들은 불에 탄 채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아는 매우 현실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느헤미아 때 원래 예루살렘 성벽보다 훨씬 작은 규모로 축소되어 재건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한 것입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아는 모든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되었을 때 백성들에게 도전했습니다. 느헤미아는 백성들에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상태를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좌책감을 불러일으키지도 않았습니다. 느헤미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또 마땅히 깨달아야 할 진리를 깨닫게 함으로 그 선한 일에 초청했을 뿐입니다. 선한 일이라고 확신하며 그 선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깨닫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지체 의식, 정체성 의식, 하나님 의식

“그 후 나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고난은 여러분이 보는 바와 같소. 예루살렘은 폐허가 됐고 그 성문들은 불에 타 버렸소. 자,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오.’ 나는 또한 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게 있는 것과 왕이 내게 말한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재건을 시작합시다.’ 이렇게 해 그들은 이 선한 일을 시작했습니다(17~18절).

느헤미아가 백성들의 세 가지 의식을 일깨웠습니다. 첫째, 지체 의식을 일깨웠습니다. 느헤미아는 1장에서 탄식하며 기도할 때도 ‘우리’라는 공동체 용어를 통하여 조상들과 자신의 죄를 동일시했습니다. 실상은 느헤미아가 잘못된 것이 아닌데도 ‘우리’라고 했습니다. 또한 느헤미아는 백성들과 자신을 동일시했습니다.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대 한국 교회 문제를 일부 어떤 교회의 문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 나의 문제입니다. 지체 의식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둘째, 정체성 의식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이 선한 일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이야말로 그들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장소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장소입니다. 그곳에 장막이 세워졌고, 성전이 세워졌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황무했다는 것은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황무해졌다는 것이고, 그들의 믿음이 무너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아는 백성들이 받았던 곤경과 수치와 능력을 상기시키며

예루살렘성이 폐허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역사의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일깨웠습니다. 예루살렘이 그들의 정체성의 핵심이었습니다.

셋째, 하나님 의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자신이 체험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 자신이 여기까지 오게 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간증했습니다. 느헤미아의 간증이 백성들에게 전염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참된 확신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식어진 마음을 일으키는 것은 느헤미아의 웅변력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물질적인 보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느헤미아가 체험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백성들에게 흘러갈 때 그들의 마음이 움직인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 스스로 성벽을 재건하자는 말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바라보며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재건을 시작합시다.’ 이렇게 해 그들은 이 선한 일을 시작했습니다”(18절).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선한 일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일의 모습입니다. 강요나 협박이나 어떤 보상을 약속함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아가 경험했던 희생, 자발적인 참여,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대한 체험에 다른 사람들이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매우 신중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준비했던 느헤미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참된 지도력은 새벽 나팔을 불기 전에 고독한 밤 하나님과 나누며 비전을 잉태하고, 그 비전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기까지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을 준비하는 기간에서 나옵니다. 또한 불의한 대적 앞에서는 사자 같은 담대함으로 백성들을 보호합니다. 느헤미아는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에는 삽을 들었습니다. 또 백성들을 품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바라보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시대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지도자들만 비판하며 탓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바라보며 우리 모두가 느헤미아가 되어서 새로운 성벽을 재건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 받는 하나님의 선한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선교지에서 온 편지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분이 당신의 이름을 둘 곳으로 선택하신 그곳에서 기뻐하되 너와 네 아들딸들과 네 남종들과 여종들과 네 성안의 레위 사람들과 너희 가운데 사는 이방 사람들과 고아들과 과부들과 함께 즐거워하라”(신 16:11).

샬롬!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힘겨운 싸움을 하는 중입니다. 주님의 긍휼로 속히 이 모든 상황들이 안정되어 다시 함차게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약 14만 명이나 됩니다. 필리핀에 이어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매일 2천여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경제지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지

난주에 이곳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해서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고 국민들을 독려했습니다.

우리는 NGO 더멋진세상의 지원으로 B마을에서 긴급구호 활동을 네 차례 실시했습니다. 초기긴급구호에서는 마스크와 비누를 나눠주고, 그 다음에는 과부와 노인, 영유아와 아동으로 긴급구호 대상을 확대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B마을 모든 가정에 1인당 쌀 5kg씩 지원했습니다. B마을 이장과 지도자들이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마을에 관심과 큰 도움을 줘서 매우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B마을에 연락소 개설과 향후 사역자 거주까지 허락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곳은 저희에게 예배처소이자 기도처가 될 것입니다. 현지인들조차 B마을 주민들이 너무 거칠어 꺼리는데,

우리와 같은 외부인에 대한 이러한 긍정적인 태도는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약 30개 정도의 시골 지역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또 교회 주변에 사는 가난한 모슬렘들에게 구호품을 전달하며 기도와 격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역이 모슬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한 모슬렘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할머니의 표정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중풍으로 고통 받고 있는 한 아주머니의 남편은 얼마 전 대장암 제거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큰 병에 걸려보니 사람에게서는 희망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서 모슬렘이지만 예수님의 치유를 간구하는 기도를 요청하셨습니다. 그의 눈에 가득 고인 눈물은

감사의 표현이었고,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가슴 깊은 고백이었습니다. 이러한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지역 교회가 모슬렘들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깊이 성찰했습니다. 또한 고통 받는 이웃들을 찾아가신 예수님을 더욱 깊이 생각했습니다.

코로나19 긴급구호를 위해 찾아간 모슬렘들이 굳게 닫힌 마음의 빗장을 열고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 작은 구호품 하나를 전달했을 뿐인데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역 교회가 모슬렘을 더 이상 두려움과 경계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으로 여겨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주님 사랑의 통로가 전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 추제이름, 김유니게 선교사(인도네시아)

“모슬렘은 우리의 이웃입니다”



복음책방 신앙을 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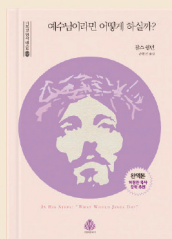
독서의 계절, 읽을수록 깊어지는 신앙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 찰스 셀던

9/15, 9/22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기 위해
모인 사람들, 그들이 전하는
예수님의 진실된 제자로
살아가는 법



<닥터 홀의 조선 회상> - 서우드 홀

9/29, 10/6

조선 땅과 사람들을
사랑했던 서양 선교사,
닥터 홀 가문이 삶으로 전해준
고귀한 사랑과 신앙



• 화요일 오전 11시 20분 방송 •

